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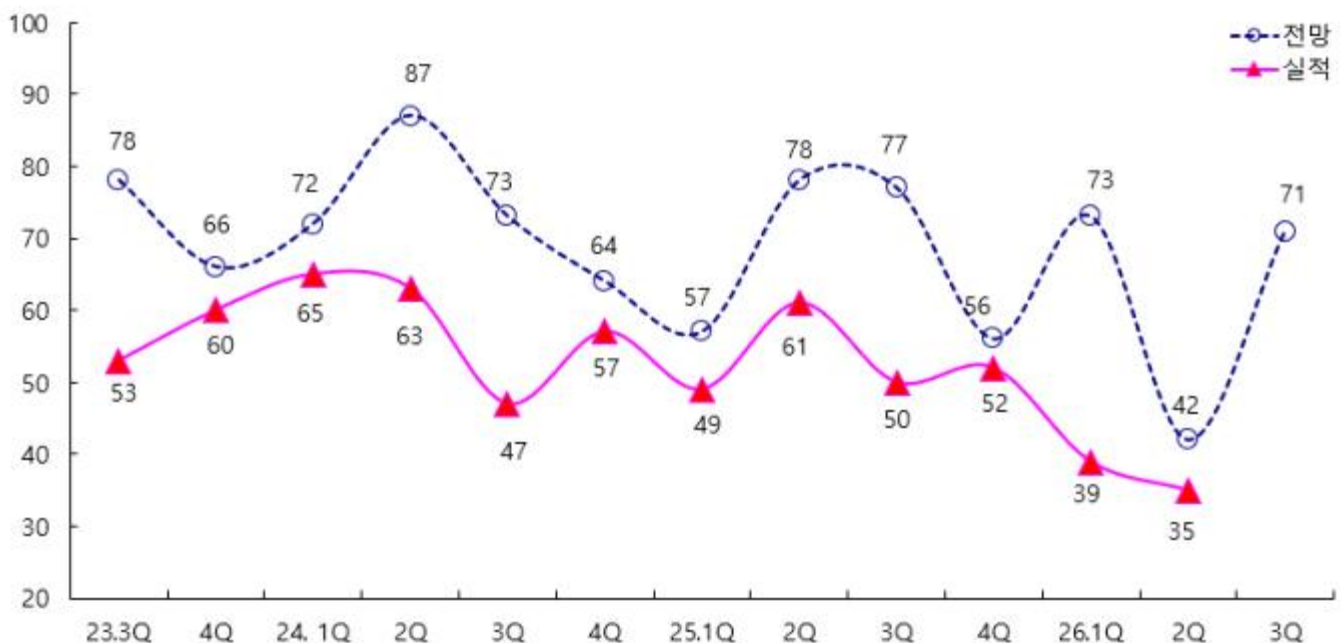
안산 제조기업 26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 '70.9', 전 분기 대비 상승에도 여전히 기준치(100) 크게 하회

- 전국(79.6)·경기(82.6) 대비 낮은 수준...안산지역 기업 체감경기 회복 더더
- 안산 제조기업 경기전망 변동 폭 크게 확대...경영환경 불확실성 고조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03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70.9'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79.6)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82.6)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본 결과, 2026년 들어 분기별 전망지수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

세부 업종별로는 섬유·의복(100), 목재·종이(100), 운송장비(100), 철강·금속(95) 업종은 '보합'을 전망했으며, 기타(80) 업종은 '부진'을 전망했다. 또한, 전기전자(60), 비금속(57), 석유·화학(56), 기계·설비(48) 업종은 '침체'를 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변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4.8%는 '변동 없음'이라고 답한 반면, 25.2%는 '변동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변동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하반기 계획 변동 사항으로 '가격·납품단가 인상'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24.3%), 이어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18.9%)',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13.5%)', '생산량·가동률 조정(12.2%)', '원·부자재 재고 확대 및 선매입(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안산지역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5%로 '기대한다'는 응답(48.5%)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음'이 41.7%, '기대하지 않음'이 9.7%를 차지했으며, '다소 기대함'은 46.6%, '기대함'은 1.9%로 집계됐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지역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2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지자체 재정·금융 지원 확대(지방세 감면,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등)(22.1%)'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 또는 투자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9.2%가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고려 중(지자체 지원, 규제 개선 조건부)'이라는 응답은 37.9%로 나타났고, '계획 있음(1.9%)', '사업 축소·이전 고려 중(1.0%)'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투자 실현을 위해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세제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22.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붙임> 『2026년 3/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